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실상

고 혜 정(高惠貞. Ko, HyeJeong)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한국정신대연구소'는 1990년에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sexual-slavery) 피해자의 조사와 실태 파악, 증언 채록, 연구를 해왔다.

특히 1993년 한국인의 중국 여행 자유가 자유로와지면서부터,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발굴,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에 이들의 존재와 실상을 알리기위해 노력해 왔다.

2000년 3월 현재, 본 연구소는 중국 거주 한국인 피해자 23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그러나 7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중 현재 16명만이 생존해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미 작고한 피해자들의 수를 합하면 100여명이 넘는다.)

이것은 현재(2000년 3월 14일)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 확인된 피해자 197명중에서 본 연구소가 조사한 수가 89명(45%)인데, 중국의 위안소(rape camp)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이 중 42명(47%)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 피해자 중 상당수가 중국 전역의 위안소에서 피해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본인이 직접 만난 21명의 피해자와 그 외 직접 인터뷰 기록이 있는 피해자 2명을 합한 총 23명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

본문 차례

어느 지역의 위안소에 있었는가
전쟁이 끝난후 일본군, 혹은 위안소 관리자는 여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는가
피해자들은 중국에 남아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그들의 후유증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말하게 되었나
새로운 후유증은 무엇인가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들이 현재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지역의 위안소에 있었는가

다음의 표는 23명의 피해자가 어느 지역의 위안소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일본군이 주둔했던 전지역에 걸쳐 위안소는 분포되어 있었다.

피해자	위안소	임신, 출산 경험	귀국 희망
1 홍강립	봉천, 상해, 남경, 장사(長沙)	O	O 사망
2 홍애진	상해, 하얼빈, 무한		O 사망
3 임금아	무한		O 사망
4 장춘월	호북성 화남시 광수(廣水), 무한		사망
5 박필연	천진, 무한		O 사망
6 박막달	호남성 장사		O 사망
7 정학수	하얼빈 산동성 조장(棗莊)		귀국후 사망
8	봉천, 무한		O
9	남경, 무한		O
10	동녕, 석문자(石門子)	O	O
11	석문자	O	O
12	흑룡강성 아성(阿城), 동녕현 석문자		O
13	석문자	O	
14	길림성 훈춘시 춘화진		희망하지만 포기
15	길림성 훈춘시		O
16	길림성 연길시		O
17	도문	O	귀국
18	흑룡강성 손오(孫吳)현		귀국
19	장춘, 목단강	O	O
20	내몽고 보우토우(包頭)		O
21	열하성(요녕성 능원)		
22	무한	출산3개월후 죽음	귀국
23	봉천, 한구		O
총 23명		7명	20명

(현재 생존자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다.)

(임신, 출산 항목의 O는 조사 당시 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이다.)

전쟁이 끝난후 일본군, 혹은 위안소 관리자는 여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들은 철수를 하고, 일본군의 협력자였던 위안소관리자들도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다.

그당시 상황을 피해자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어느날 갑자기 군인들이 오지않았다.”

피해자들은 군인들과 위안소 관리자들이 모두 떠난 후에야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사지에 버려진 것이다.

일제의 만행에 치를 떨던 중국인들에게 피해자들은 “일본군의 갈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갖고있던 물건들을 빼앗겼고, 구타당했다.

위안소에서 성노에 생활은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적어도 동료들과 위안소 관리자, 상대 군인들 이외의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종전후 그들은 아무런 보호막없이 중국 사회에 방치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위안소 내에 억류되어 있던 피해자들은 위안소 밖의 중국을 알지 못하고 중국어도 할 줄 몰라 당장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는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부대 안과 인근 지역으로 위안부를 끌여들였던 일본군은 위안부들의 동원과 수송, 관리 등에 조직적으로 주도하거나 관여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여자들을 전지에 그대로 방기하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오십여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들을 원상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

일본은 자국 병사와 거류민, 전쟁 포로, 그리고 중국인 잔류 고아에 이르기까지 자국민 송환 조치는 종전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성노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실태 파악은 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있다.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피해자들에게 무마의 손짓을 내보이고 있는 국민기금쪽조차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위안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들을 도와준 것은 중국 내 조선인 - 거류민, 혹은 징용 징병 당한 군인들 - 이거나 같은 처지의 여자들, 혹은 '마음씨 좋은 중국인'이었다. 무한 인근의 여자들은 무한의 일정한 장소로 집결하기도 했으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제 살길을 찾아야 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동료들 중에는 강물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중 대다수는 고향으로 돌아갈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일부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에 시달렸으며, 고향에 돌아가 떳떳하게 가족들을 만나고 과거를 털어버리고 살 자신이 없어 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귀향선이 끊겼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국교가 없는 중국과 한국간의 왕래는 불가능해졌다. (한중수교가 되기 전까지) 그들은 고향에 돌아올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피해자들은 중국에 남아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종전 직후, 학력이 낮고, 중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노에 전력이 있고, 중국내 가족관계나 인맥이 없는 피해자들이 중국에 버려져 생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식당의 설거지나 남의 집 빨래 등을 하거나 술집의 작부가 되거나 심지어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매춘업소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매춘정리를 할까지)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하층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경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공장 등에 일자리를 얻어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갈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전반적인 중국인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적응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혼자 사는 것

도 가능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남아 증언을 해줄 수 있었던 피해자의 경우이고,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경우, 생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석가장에서 살았던 이보금할머니의 경우, 쓰레기 통을 뒤져 생활을 했으므로 언제나 몸에서 나쁜 냄새가 풍겨 '똥할머니'로 불리웠다고 한다. 이토록 생계 해결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된 피해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에 뛰어들어 자살한 김용, 약을 먹고 자살한 김수반할머니등(무한)은 중국에서보차 뿌리내리지 못한 피해자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들은 대부분 중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부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전처 자식이 있는 남자, 혹은 지독히 가난하여 다른 중국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던 남자나 불구자를 만나 또 다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중 일부는 남편의 이해와 본인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남편의 가족에 편입했지만, 다른 일부는 성노예 피해자라기보다는 "갈보"로 천시되어 남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결혼 반대와 구박, 질시, 모멸에 시달렸다.

그들은 중국에서의 생활에 정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뿌리뽑힌 자의 삶"을 살아야했으며, 그들은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 23명중 7명(30%)만이 출산을 했고, 나머지 16명(70%)은 모두 임신 출산을 하지 못하여, 남편의 자식이나 수양자식을 데려다 키웠다.

전처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임신 가능 여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아이를 못낳는 것이 가족관계 속에서 그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화 혹은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남편이나 그 가족과 사이가 원만치 못했다.

그들의 후유증은 무엇인가

그들은 아직도 신경쇠약, 두통, 우울증, 어지럼증, 기억상실증, 자궁과 방광 이상 등 성노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속적인 강간으로 인한 성병과 불임은 곧 여성성의 파괴를 의미한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삶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여성들에게 자신이 불임여성이라는 사실은 곧 자신이 불구자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지속적인 강간 경험이 있는 성노예 피해자들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기피증, 섹스기피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남편과의 성생활이 원만치 못했다.

또한 성노예 경험과 이후의 사회생활에서 생긴 대인 기피증으로 그들은 사회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다.

그냥 인사를 하며 지내는 친구들은 있지만, 자신의 근원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친구는 없었다. (특이하게도 전에 무한지역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모일 기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노령으로 거의 대부분 타게했다.) 중국어에 능하지 못하고, '조선 갈보'라는 손가락질이 싫어서 사람들을 더욱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 단절감이 컸다.

그들은 술, 담배로 자신의 우울함을 달래려하거나 일에 몰두하여 잊으려 했다.

(중국 사회가 갖는 개방화, 현대화의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가 이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핵가족화 / 사회주의적 노동, 고용, 사회보장--> 자본주의적 고용관계, 사회보장제도의 와해, 물질만능적 사고) 이 속에서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크고 작은 일상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게 되었나

중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는 일은 사막에서 모래알을 가려내는 것만큼 어려웠다. 신문의 일단 기사에서 출발한 피해자 발굴작업으로 중국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20여명의 한국 출신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를 만난 피해자들은 한국인을 만난 기쁨과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반가움에 감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살아온 이야기를 며칠에 걸쳐서 쏟아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존재가 중국사회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일생을 망치게 한 일본에 대한 강한 원망을 표현했다.

새로운 후유증은 무엇인가

일본군 성노예였다는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져 언론 취재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중국 공안국의 사찰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당국의 간섭과 감시라고 여겨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과거가 알려짐으로써 이웃들에게 또 다시 소외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싸여있다.

고향에 가고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곧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할 복잡한 과제들이 있다. (국적 문제 등) 그 결과 피해자들의 향수병이 더욱 깊어졌다.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수양 자식들과의 갈등, 단절감, 고립감을 느낀다. 혼자 사는 경우는 병 수발을 해줄 사람이 없어 고생을 겪고 있다.

연금(200-400위안) 등으로 생계 해결은 되지만, 병이 났을 때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노예 후유증으로 인한 몸의 병도 치료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더구나 정신적 상처는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조사 발굴, 실태 파악, 이후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중국 거주 위안부 할머니 돕기 모임'에서 매달 200위안을 전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국적으로 회복과 귀국을 원하는 분들의 귀국 추진을 돕고 있다. 현재 국적을 회복하여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23명중 4명이고 그 중 현재 3명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국 거주 피해자들은 국적 문제로 인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민간 차원의 생활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들이 현재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 거주 피해자들의 경우, 우선적인 희망 사항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다.

“끌어간 것이 일본이니,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원상회복해야할 책임도 일본에 있다.”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고싶다. 상해 앞바다, 천진 앞바다에 뼈를 뿌려달라.”고 유언한다.

한국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죽을 때는 고향에 돌아가 죽고싶다고 말한다.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 뼈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한다. 죽어서라도 고향땅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우리는 이들이 50여년 넘게 타국에 버려져 얼마나 고향을 그리며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

*

일본군 성노예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패전 직후 혹은 그 이후 어느때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들로 하여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고, 부모 형제의 생사도 모르게 했다.

이들은 지금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식민지 여성으로서 희생자였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한반도 분단의 희생자들이다.

좌우 이태올로기의 대립과 냉전의 결과, 이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고, 그들은 한국 역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20세기 세계사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향수병에 시달리며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이들의 불행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일본의 반인륜, 반인권 범죄행위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원상 회복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일본에 대해 이들을 연행, 성노예화 한 범죄 위에 종전후 이들을 방기한 죄, 또한 지금까지도 이들의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태만히 한 죄까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韓國挺身隊研究所

大韓民國 漢城 銅雀區 鷺梁津 2洞 231-82 17/3

Korean Institute of Jeongsindae

17/3 231-82, Norangjin 2-Dong Dongjak-ku Seoul Korea

Tel 02-814-9207

Fax 02-814-9211

E-Mail RCSD2659@CHOLLIAN.NET